

	<h1>보 도 자 료</h1> <p>제공일 : 2025년 6월 17일 사 진 : 포함(2매)</p>	작성과	의회사무과
		담당부서	부서장 : 정상태 팀 장 : 이창형 담당자 : 정민석
		연락처	061)830-6065

고흥군의회 - 노원구의회 지방의회 협력의 지평을 열다

- 자매결연 협약 체결, 수도권과 지방 간 상생의 교량

지난 6월 16일, 고흥군청 우주홀에서 전라남도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장 손영준)가 지방의회 간 교류와 도농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자매결연 협약은 제9대 후반기 고흥군의회 의장단 출범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시책이기도 하다.

이날 협약식을 갖기까지 고흥군의회는 협약 체결에 앞서 자매결연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설정한 후, 지난 2월 전체 의원에게 교류 희망 의회에 대한 의견을 받고, 3월에 의원협의회를 거쳐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 있는 협력 모델로 노원구의회를 최종 결정했다.

이어, 4월에는 양 의회 실무자 간 교류 의향을 확인한 뒤 고흥군의회가 먼저 노원구의회를 방문하여 공식 자매결연 간담회를 가졌으며, 상호 간의 깊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오늘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협약서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 및 우수사례 교류 ▲지역 문화 및 특산물 소개를 통한 지역 홍보 확대 등 지방의회와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지속 발전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류제동 고흥군의회 의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자매결연은 단순한 상징적 만남이 아닌, 정책 교류와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자,

손영준 노원구의회 의장은 “노원구와 고흥군의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여 양 의회가 동반성장의 모델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화답하고 협약식을 마쳤다.

한편, 고흥군과 노원구는 2019년 지자체 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역 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은 양 지역 간 교류의 폭을 더욱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전라남도 고흥군의회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자매결연 협약서

전라남도 고흥군의회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역 간 우호 협력 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이 협약은 의회 간 의정활동 정보 공유와 상호 방문,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한다.
 - 가. 의정활동 및 제도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
 - 나.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 및 우수사례 교류
 - 다. 지역문화 및 특산물 소개를 통한 지역홍보 확대
 - 라. 기타 상호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의회는 필요시 상호 방문 및 공동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정기적 소통을 유지할 수 있다.
4. 의회 간의 교류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각 의회가 자율적으로 부담하며, 상호 협의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5.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하며, 필요시 협약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본 협약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각 의장이 서명하고,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6월 16일